

오피니언

7

사설

수강신청 문제, 근본적인 고민 시작하자

수강신청과 관련된 문제가 이번 학기에도 어김없이 이어졌다. 매 학기 이어지는 고질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학생들의 불만은 이만 저만이 아니다. 지난 학기 수강신청과 관련해 곤욕을 치렀던 단과대학에서 비슷한 문제가 다시 발생해 학생들의 불만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수강신청은 한 학기 동안 학생 개개인의 학습과 직결된다. 어떤 한 강의를 듣느냐에 따라 본인의 학점, 수학 능력 등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수강신청은 개인의 생활과 삶의 만족도를 뒤바꿀 수도 있다. 만족스러운 수강신청을 하지 못한 일부 학생들이 휴학을 하는 것 역시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수강신청은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으로 간주된다. 대다수 학생들은 강의평가와 수업계획서, 강의 시간 등을

고려하여 며칠에 걸쳐 수강할 과목을 선택한다. 일부의 경우 수강신청일을 제외하고 여행 기간을 정하기도 한다. 이른바 '망한 수강신청 대회'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도 수강 신청에 대한 학생들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는 한 풍경이다. 이렇게 중요한 수강신청과 관련된 문제가 매학기 이어지고 있으니 학생들은 답답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지난 학기와 이번 학기 수강신청과 관련된 문제를 되짚어 보자. 문제의 공통적인 원인은 책임자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바가 크다. 학사지원팀에 따르면, 수강신청 관련 업무는 본래 단과대 소관이다. 하지만 상당수의 단과대는 수강신청 관련 업무를 각 학과의 조교들에게 위임한다. 따라서 수강신청과 관련된 책임소재는 자연스레 불분명해지며 문제의 원인이 되곤한다.

한정된 정원에 비해 많은 다전공자 및 융합전공자의 수요가 몰리면서 본전공생을 포함한 수강희망 학생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 역시 고질적인 원인 중 하나이다. 디지털콘텐츠학과, 경영학과와 일부 사회과학계열 학과들은 융합전공 뿐 아니라 다전공 지원을 위한 선수강 수요도 겹친다. 예산 등의 문제로 강의 확충 역시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제한 없는

수강신청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최근 불거지고 있는 수강신청 관련 문제는 시스템 상의 오류 등 학생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수강신청 문제와 관련된 공지 및 대응 방안 역시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학생사회에서 행정실의 대응에 불만을 드러내는 것도 충분히 납득할만한 지점인 것이다.

지금이라도 대학은 수강신청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시작하여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가령 각 학과의 예산과 교수 TO 등을 입학정원이 아닌 다전공자를 포함한 실제 등록 정원에 따라 배분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서울대는 많은 학생이 타 전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바 있고, 인기 학과의 수강신청 난항은 상당 부분 다전공과 융합전공이 고질적인 해결됐다.

단과대학의 변화 역시 필수다. 수강신청이 단과대학의 소관인 만큼, 각 단과대학은 수강신청과 관련된 업무를 단과대학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 더 이상 권한이 없는 조교가 수강신청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수강신청이 학생들에게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학의 발 빠른 대응을 기대한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우리 대학 신체검사

30분의 가치



양세빈 기자
abok29@khu.ac.kr

가 빨라서 1~2년 건강검진을 건너뛴 것만으로도 상태가 순식간에 나빠질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21학년도 신입생 신체검사를 받으러 간 당시 소변 검사, 혈액검사, 체중과 신장 측정, 흉부방사선 검사, 의사와 상담까지 하는 데는 30분이라는 짧은 시간이 소요됐다. 하지만 이 짧은 시간은 생활 습관을 되돌아 보고 보완할 점을 찾아 앞으로의 건강을 계획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젊으니까 아직은 괜찮겠지"라는 '안심', 학업과 취업준비로 바쁜 일상 속 시간을 내기에는 '귀찮음' 또는 건강과 건강검진에 대한 '무관심'은 저조한 수검률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30분이 추후 우리의 건강에 주는 가치는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학업에 쓸겨 취업에 쓸겨 지금의 삶이 바쁘기만 하지만 이 모든 것도 건강해야 이를 수 있는 것들이기에 30분의 가치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만평 건강에 관심이 필요할 때

경희대학교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한준태 | 편집인 남윤재 | 편집장 이동건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청솔디자인 | 인쇄 옴니피앤디

세시봉

#고블린모드



서세종 기자
sejong0362@khu.ac.kr

배우 유아인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과거 연예인과 더불어 재벌들의 마약 문제는 수시로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 정부의 마약류 범죄를 향한 강경한 정책 기조는 이번 논란에 더 불을 지핀 듯 보인다. 정부의 정책 기조 이면에는 매년 눈에 띄게 증가하는 마약류 사범 적발 추이가 있다. 더불어 청소년 마약 범죄 증가 추세는 문제의 심각성을 폭로하고 있다.

2016년 옥스포드 사전은 'Post-truth(탈진리)'를 올해의 단어로 선정했다. 탈진리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모호해진 상태 혹은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의 필요성이 의심되는 상태를 일컫는다. 우리는 2010년 중반 이후 스마트폰의 보급과 SNS 이용의 활성화를 통해 정보 소비 습관의 큰 변화를 겪었다. 현 사회는 주류 언론을 통하는 전통적인 방식보단 SNS 혹은 유튜브 같은 새로운 수단을 통해 정보를 소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보고 싶지 않은 것은 보지 않는 시대가 도래했다. 객관성을 잃은 집단이 옳고 그름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은 만무하다. 객관성과 사회적 합의의 부재는 인간 실존의 궁극적인 질문들 "왜 사는 것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 불확실한 그리고 파편화된 답변을 열거한다. 결국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인간의 궁극적인 질문에 공백이 생긴다.

탈진리적인 사회의 모습은 지금까지도 연속성을 띠는 것 같다. 옥스포드 사전이 2022년 선정한 올해의 단어는 'Goblin mode'다. 이 신조어는 게으른, 이기적인 방식으로 사회적 기대와 기준을 거부하는 뻔뻔스럽고 탐욕스러운 쾌락주의적 태도를 의미한다. 2022년 2월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이 단어는 사용자들이 게으른, 쾌락만을 좇는 자기 모습을 #goblinmode와 함께 게시하면서 새로운 트렌드가 되었다. 저마다 불확실한 답을 내놓는 난잡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끝내 의지하는 것은 확실하고 쉬운 쾌락이 아닐까?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쾌락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망이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마약 문제 또한 이러한 시대적 배경의 연장선상에서 관찰할 수 있다.